

19세기 후반 高宗의 국정 운영과 別入侍*

노 대 환**

목 차

- I. 머리말
- II. 고종의 친정과 별입시의 등장
- III. 1880년대 개화정책 추진과 별입시의 변화
- IV. 1890년대 중반의 정국 변동과 별입시의 동향
- V. 맺음말

국문초록 | 본고는 19세기 후반 고종 대 別入侍에 대해 고찰한 연구이다. 별입시는 국왕을 수시로 알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관료를 말한다. 고종은 대원군이 퇴진한 후 실질적으로 친정에 나서자 자신의 부족한 정치 기반을 보강하기 위해 별입시를 활용하였다. 별입시는 고종이 강제로 퇴위하기 전까지 존속하였다. 국왕을 측근에서 보필하는 관리는 어느 시기에나 있었지만 별입시라는 명칭을 부여하여 알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집권 기간 내내 별입시를 유지한 것은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별입시는 고종 대 정치 운영 방식 내지 정치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별입시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검토만 이루어졌을 뿐 본격적인 연구는 없었다. 별입시는 고종 친정 후부터 퇴위 전까지 활동했던 인물들이므로 별입시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별입시의 전체상을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 이 논문은 2022년도 동국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盧大煥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qwert@dongguk.edu

투고일: 2023. 4. 2. 심사완료일: 2023. 5. 7. 게재확정일: 2023. 6. 19.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3.44..159>

시기별로 별입시의 구성원은 어떻게 변화하였고 어떤 임무를 수행했는지 등이 주요한 고찰 대상이다.

핵심어 | 고종, 명성왕후, 별입시, 임오군란, 갑신정변, 아관파천

I. 머리말

別入侍는 본래 특별히 입시하는 행위를 뜻하지만 고종 대는 국왕을 수시로 알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관료를 지칭하였다. 국왕을 측근에서 보필하는 관리는 조선 시대 내내 존재하였으나 별입시라는 명칭을 부여하여 국왕이 그들과 접촉한 것은 이전에는 없던 일이다. 별입시는 대원군이 해야 하고 고종이 실질적으로 친정하면서 등장한 후 고종이 강제로 퇴위하기 직전까지 존속하였다. 별입시는 특별한 존재였던 만큼 당대인들 사이에서도 주목의 대상이었고 별입시에 대해 많은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런 점에서 별입시는 고종 대 정치 운영 방식의 일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별입시는 중요한 연구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별입시에 관해서는 오영섭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 오영섭은 李範繩이 갑신정변 후 별입시로 활동하는 과정을 살피는 가운데 별입시에 대해 언급하였고,¹⁾ 특히 후기의병운동 과정에서 별입시가 고종의 거의밀지를 전달하는 과정에 참여한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는 별입시는 한말 의병운동 때 고종 및 근왕관료가 재야세력과 연계관계를 맺는데 중간 역할을 했던 근시 집단으로 평가하였다.²⁾ 이러한 오영섭의 선구적인 연구를

1) 오영섭, 「을미사변 이전 이범진의 정치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5, 2005, 14~17쪽.

2) 오영섭, 「한말의병운동의 발발과 전개에 미친 고종황제의 역할」, 『동방학지』 128,

통해 별입시의 중요성이 알려지게 되었다. 한편 황태연도 오영섭의 논의를 바탕으로 1894년 이후 고종이 별입시를 통해 거의밀지를 전달한 과정에 주목하였다.³⁾ 이들 연구는 후기의병운동에 고종 측근의 별입시가 관여한 것을 조망하여 별입시의 중요성을 환기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후 별입시에 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별입시 전체의 모습을 살피는데 이르지 못하였다.

별입시는 고종 친정 후부터 퇴위 전까지 활동했던 인물들이므로 별입시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를 발판으로 별입시의 전체상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시기별로 별입시의 구성원은 어떻게 변화하였고 어떤 임무를 수행했는지 등이 주요한 고찰 대상이다. 본고가 고종 대 별입시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데 조금이라고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고종의 친정과 별입시의 등장

특별한 존재로서의 별입시가 처음 등장한 것은 고종이 실질적으로 친정에 나섰던 1874년경이다.⁴⁾ 黃玹(1855~1910)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갑술년(1874) 초에 고종의 親政이 시작되었으나, 안으로는 明成王后가 주관하고 밖으로는 閔升鎬가 명을 받들어 시행하였다. 명성왕후는 총민하고 정략도 풍부하였는데, 언제나 고종의 곁을 떠나지 않고 고종이 미치지

2004, 75~89쪽.

3) 황태연, 『갑오왜란과 아관망명』, 청계, 2017, 118~123쪽.

4) 본고에서 날씨는 공식적으로 양력을 사용한 189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은 음력, 이후는 양력으로 표기하였다.

못한 일을 도와주었다. 처음에는 고종에 의지해 애증을 마음대로 하다가 그 후 방자한 행동이 날로 심해져 고종이 도리어 제재를 받게 되었다. 민승호는 대원군이 전횡하다가 유폐된 것을 경계하여 고종에게 지위가 높은 조신으로 輿望이 있는 이들을 골라 그들이 차례로 入直하면서 機務에 참여시키고 別入侍라 할 것을 건의하였다.⁵⁾

고종 친정 후 閔升鎬(1830~1874)의 건의로 별입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별입시라면 특별히 입시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고종 대의 별입시는 별입시를 할 수 있는 인물을 지정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⁶⁾ 그로 인해 당시 별입시는 특정 직책처럼 이해되기도 하였다. 황현은 金炳始(1832~1898)·金永壽(1829~1899)·金輔鉉(1826~1882)·鄭範朝(1833~1897)·尹滋惠(1827~1890)·趙寅熙(1822~?)·閔謙鎬(1838~1882) 등이 별입시의 특권을 부여받은 인물이라고 지적하였다.⁷⁾ 황현은 『梧下紀聞』에서도 별입시에 대해 언급했는데 대체적인 내용은 『매천야록』과 비슷하지만 별입시로 선발된 인물에 대해 “자기 쪽의 중요한 벼슬을 지낸 집안과 명성이 높은 벼슬아치 및 소론 가운데 성격이 부드럽고 근신하는 사람”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혔고 沈舜澤(1824~1906)도 별입시라고 하였다.⁸⁾ 한편 金澤榮(1850~1927)은 1874년 정월에 고종이 인사들을 사사로이 기용하고자 하여 金병시·김영수·민경호·정

5) 黃玪, 『梅泉野錄』(한국사료총서 제1집), 22쪽, “甲戌初 上始親政 而內則明成王后主之外則閔升鎬奉行之 后聽敏饒權略 常左右上 補其不逮 始猶藉上 以售其愛憎 既而專恣日甚 上反爲所制 升鎬懲雲峴專擅而廢 勸上選朝貴有時望者 輪次入直 參預機務 謂之別入侍”.

6) 본고에서는 별입시 특권을 가진 이들을 별입시로 표현했음을 밝혀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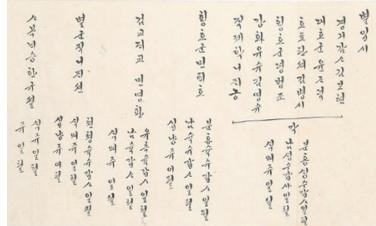
7) 尹孝定은 별입시 가운데도 金병시·김보현·尹滋承(운자덕의 誤記로 추정 : 필자 주)·閔台鎬 등이 ‘四貴別入侍’로서 고종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고 하였다. 尹孝定, 『風雲韓末祕史』, 수문사, 1984, 44쪽.

8) 黃玪, 『梧下紀聞』(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 제1권), 14쪽, “閔氏既正位 中宮年稍長 習見純元神貞兩大妃之專制長君也 心慕之 是應之去 頗有力焉 因以參決庶務 升鎬奉行而已 性復恣闇而 懲是應獨專之失 遂募其黨中世家名宦及小論之柔謹者 輪直闕中 謂之別入侍 若金炳始 金輔鉉 沈舜澤 鄭範朝 尹滋惠之徒 群然趨附數年之間”.

범조·윤자덕·조인희 등을 선발하여 이들을 별입시로 불렀다고 하였다.⁹⁾ 황현과 달리 고종이 별입시를 만들었다고 본 것이다.

별입시는 공식적인 직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인물이 어떻게 별입시에 기용되었는지 구체적인 경위는 파악하기 어렵다. 김병시의 경우 家狀에 따르면 1875년 산실청이 설치되어 도승지로 산실청에 속직하고 있을 당시 갑자기 고종이 불러 민규호·김보현·윤자덕 등과 함께 등대했는데 이후 고종의 대우가 날로 융성해져 임금을 가까이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¹⁰⁾ 김병시는 산실청이 설치된 1875년 3월경에 김보현·윤자덕 등과 함께 별입시의 자격을 얻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별입시로 거론된 인물들이 일괄 별입사가 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별입시라고 언급된 인물은 적지 않지만 공식적으로 별입시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단 1건 뿐이다. 왕세재후일의 순종의 천연두가 나온 것을 기념하여 1879년 12월에 시상한 기록인 「성두후내외상격발기」[그림]가 그것인데 김보현·윤자덕·김병시·정범조·



[그림] 「성두후내외상격발기」

김영수·李載兢(1857~1881)·閔台鎬(1834~1884)·閔泳煥(1861~1905)·李載先(?~1881)·韓圭高(1848~1930) 등 총 10인이 별입시로 표시되어 있다.¹¹⁾ 어떤 차이인지는 알 수 없지만 김보현 이하 이재궁까지 6인이 같은 물품을, 나머지 4인은 각기 다른 물품을 하사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성두후내외상격발기」

9) 金澤榮, 『韓史繫』 권5(亞細亞文化研究所 刊, 1977, 『金澤榮全集』 5), 太上皇紀 甲戌 11년(1874), 286쪽.

10) 金炳始, 『蓉菴集』 附錄 「家狀」. 연갑수는 이를 별입시에 선발된 것이라고 보았다. 연갑수, 「蓉菴 金炳始(1832~1898)의 삶과 현실인식」, 『조선시대사학보』 44, 2008, 111~112쪽 참조.

11) 「성두후내외상격발기」(장서각 RD01553).

에 표시된 별입시가 왕세자의 천연두 치료와 관련하여 입시했던 것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인물 군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황현이 별입시로 거론했던 인물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후자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별입시가 특정 인물 군을 지칭한다면, 국왕은 언제나 관료를 불러 별입시를 할 수 있는데도 굳이 별입시를 할 수 있는 인물들을 지정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관료에게 별입시라는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여 그들의 충성심을 끌어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황현의 기록과 「성두후내외상격발기」에 별입시로 언급된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들은 크게 세 집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노론계 인사들이다. 김병시는 안동 김문 가운데도 핵심인 金昌集의 후손이다. 황현에 따르면 김병시는 부귀를 누린 집에서 태어났지만 성품이 매우 조용했고 고종이 즉위한 이후에도 시세에 따라 아부하고 다니지 않아 대원군이 매우 중히 여겼다고 한다.¹²⁾ 대원군 집정기인 1870년부터 1873년까지 충청감사로 재직했고 임기를 마친 후에는 의정부 당상에 기용되었다. 김보현은 金長生의 후손으로 약관에 급제한 후 안동 김문과 친분이 있어 철종 때 참판에 올랐지만 흥선대원군이 집정한 후 그를 비루하게 여겨 관직에서 배제했다고 한다.¹³⁾ 실제 김보현은 대원군 집정기에는 거의 존재감이 없다가 대원군 하야 후에야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김영수 역시 김장생의 후손인데 1870년에 문과에 급제한 후 순탄한 관직 생활을 하다가 1876년 성균관대사성에 올랐다. 올라설 수 없는 자리에 하루아침에 올랐다 함부로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고 스스로 밝혔을 만큼 상당히 파격적인 인사였다.¹⁴⁾

12) 黄炫, 『梅泉野錄』, 23쪽.

13) 黄炫, 『梅泉野錄』, 22~23쪽 ; 金澤榮, 『韓史繫』, 288쪽.

14) 『承政院日記』 高宗13년 8월 1일.

심순택도 대원군 집정기에 별다른 행적을 보이지 못하다가 고종 친정 후 활발하게 활동하였다.¹⁵⁾

노론계 별입시의 핵심은 역시 민태호·민겸호·민영환 등 여흥 민씨계 인사들이라 할 수 있다. 민태호는 閔泳翊(1860~1914)의 친부이며 순종의 장인이기도 한데 개화기에 활동했던 여흥 민씨 가운데 후한 평가를 받았던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다. 여흥 민씨의 부패상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황현도 민태호에 대해서만큼은 ‘자상하고 근신하여 전제정치를 하지 않아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들었다’고 평하였고,¹⁶⁾ 김택영 역시 ‘문학으로 自持하고 詳愼不專’하였다고 후한 점수를 준 바 있다.¹⁷⁾ 민겸호는 민승호의 동생으로 흥선대원군의 매제이기도 하다. 민승호의 폭사 후 민영익이 민승호의 양자가 되면서 민겸호는 민영익과 숙질의 관계가 되었다. 민영환은 민겸호의 아들로 1878년 과거에 급제하고 이듬해 불과 18세의 나이에 별입시의 지위에 있었다. 이처럼 여흥 민씨 가문의 별입시는 주로 민승호-민영익과 관련된 인물들이었다.¹⁸⁾ 아마도 이들이 별입시가 되는 과정에서 명성왕후가 개입하지 않았을까 짐작이 된다.

김병사·김보현·김영수도 여흥 민씨와 친분이 있었다. 김병사는 선친의 형제들이 명성왕후의 부친 閔致祿(1799~1858)과 같은 동네에 살며 교분을

15) 황현은 심순택의 부친 沈宜晷이 안동 김씨와 친하게 지내며 대원군을 무시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했는데(黃炫, 『梅泉野錄』, 20쪽) 심의면은 심순택의 부친이 아니라 동생 沈履澤의 양부였다. 고종이 즉위하자마자 심이택은 의주부윤 재직 당시 부정 축재한 사실이 암행어사에 의해 적발되어 제주도에 위리안치 되었고, 심의면은 인현왕후의 옛집을 함부로 개축한 죄로 향리방축되었다.(『高宗實錄』 高宗 1년 3월 9일) 이를 보면 대원군과 심씨 가문이 불편한 관계에 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16) 黃炫, 『梅泉野錄』, 45쪽.

17) 金澤榮, 『韓史繫』 권5, 太上皇紀 丁丑 14년(1877), 291쪽.

18) 민태호의 아우 閔奎鎬의 양자 閔泳韶(1852~1917)도 1878년 급제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별입시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朝鮮高官 盛衰期, 半島天地를 흔들든 鎬氏 後裔의 今日, 當年勢道=於今安在 : 一鄉暗」, 『別乾坤』 제64호, 1933년 6월.

나는 사이여서 민치록의 묘지명을 짓기도 하였다.¹⁹⁾ 황현은 김보현이 대원군의 눈 밖에 났다가 민승호와의 인연으로 궁궐에 출입하면서 총애를 받았다고 하였고,²⁰⁾ 鄭喬(1856~1925)는 김보현을 민씨 일족에 붙여 권력을 농단하던 자로 평하였다.²¹⁾ 실제 김보현은 대원군 집정기 때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고종이 실제 친정에 나서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민영익이 손녀사위가 되었던 데서 김보현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김영수의 경우는 민영익의 부탁을 받고 민승호의 묘갈명을 지었다. 민영익이 김영수에게 민승호의 덕행을 보고 들은 것이 김영수만 한 사람이 없다면서 묘갈명을 지어 양가 선대의 우의를 지키고 부탁을 하여 김영수가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를 보면 김영수와 민승호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²²⁾ 김병시 등이 별입시가 될 수 있었던 데도 여흥 민씨와의 관계가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소론계 인사들이다. 소론계 별입시는 정범조·윤자덕·조인희 세 사람이다. 황현은 대원군의 실각으로 남인과 북인계가 이미 물러났는데 소론마저 누르면 노론에게 비방이 물리지 않을까 우려하여 배치했다고 설명하였다.²³⁾ 여흥 민씨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고 구색을 맞추기 위해 소론을 기용했다는 것이다.

소론계 별입시 3인은 소론을 대표하는 가문의 인물들이다. 정범조는 대표적인 소론 명문가인 동래 정씨 출신으로 헌종 대부터 고종 대까지 6차례

19) 金炳始, 『蓉菴集』 권11, 墓誌銘 「驪城府院君純簡閔公致祿墓誌銘」. 연갑수, 앞의 논문, 2008, 113쪽 참조.

20) 黃炫, 『梅泉野錄』, 23쪽. 김택영은 김보현이 金炳龔와 친밀한 관계에 있어 대원군에게 배척되었다고 설명하였다.(『韓史繫』 권5, 太上皇紀 乙亥 12년, 288쪽)

21) 鄭喬, 『大韓季年史』 上(한국사료총서 제5집), 14쪽.

22) 金永壽, 『荷亭集』 권7, 墓碣銘 「兵曹判書贈領議政忠正閔公升鎬墓碣銘」, a322-122a, “公之哲嗣尙書泳翊 方奉使在外 送示公言之狀 徵余以鐫珉之文 以余世講先誼 且公懿德偉行之及見及聞 謂莫如余 余不可辭”.

23) 黃炫, 『梅泉野錄』, 22쪽.

영의정에 오른 鄭元容(1783~1873)이 그의 조부이고, 부친 鄭基世(1814~1884)는 우찬성을 지냈다.²⁴⁾ 황현은 정원용의 동래 정씨 가문에서 많은 재상을 배출했지만 근신하여 世臣의 모범이 되었으며 정기세는 더욱 겸손했다고 평가하였다.²⁵⁾ 윤자덕의 본관은 파평으로 尹拯의 후손이다. 정원용의 외손자이기도 한 윤자덕의 집안은 두 아들도 문과에 급제하여 명망가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조인희는 양주 조씨 출신인데 그의 집안은 동래 정씨와 비견된다. 조인희 부친 趙得林(1800~?)과 숙부 趙徽林(1808~?)은 판서 등 주요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조인희 3형제와 조휘립의 아들이 급제하여 요직에 진출하였다.²⁶⁾ 고종은 대표적인 소론 가문에서 별입시를 선발하여 자신의 정치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충친 세력이다. 이재궁과 이재선이 그들인데 이재궁은 흥선대원군의 형 李最應(1815~1882)의 아들이며, 이재선은 흥선대원군의 서자로 고종의 이복형이다. 이최응은 대원군과 화합하지 못해 대원군 집정기 때는 별 역할을 하지 못하다가 대원군이 실각하자 좌의정으로 임명되었다. 대원군을 견제하기 위해 중용한 것인데²⁷⁾ 별다른 이력도 없고 나이도 어린 이재궁을

24) 정원용에 대해서는 김해인, 「勢道政治期 관료 鄭元容(1783~1873)의 정치 활동」,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참조. 정원용의 아우 鄭憲容은 음관으로 공조판서 등을 역임하였고 그의 아들 鄭基壽는 이조판서를 지냈다. 정원용의 사위였던 李裕元은 “한 집안에 軹軒이 다섯이나 된 것은 국조에 드문 일”이라고 처가의 위세를 설명하였다.(李裕元, 『林下筆記』 권26, 春明逸史 「鄭門五軹」)

25) 黃炫, 『梅泉野錄』, 24쪽.

26) 이유원은 문호의 성함과 복력의 두터움은 鄭氏 가문과 비슷하지만 科甲은 정씨 집안보다 오히려 낮고, 한집에 살면서 같은 술의 밥을 먹는 자들이 위아래로 백여 명이나 된다고 하였다. 李裕元, 『林下筆記』, 권26, 春明逸史 「趙門福力」. 한편 조득림은 1855년에 정사로, 조휘립은 1861년에 정사로 중국에 다녀왔고, 조인희도 1875년 부사로 연행하였다. 따라서 상당히 대외 사정에 밝았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조인희가 1876년 6월 講修官에 임명되어 조일수호조규부록 및 무역규칙 체결을 주도했던 것도 그러한 집안 분위기와 관련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27) 김택영은 이최응이 대원군의 당백전 발행에 반대하였고 고종이 이러한 사실을 알아

별입시로 부른 것은 이최응에 대한 우대 차원이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황현은 민승호가 대원군과 적대 관계가 되면서 문제가 있으면 언제나 이최응을 시켜 고종에게 고하게 했고 이최응도 민승호의 요청을 기꺼이 수락했다고 하였다.²⁸⁾ 이최응은 일본의 서계 접수 요구 때 접수를 극력 반대했던 이하응과 달리 일본이 이미 서계를 대략 고쳐왔는데 계속 대치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대원군을 견제하는 역할도 하였다.²⁹⁾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별입시는 여흥 민씨 세력, 여흥 민씨와 친밀한 관계에 있던 노론계 인사, 대표적인 소론계 가문 출신의 인사, 대원군 견제에 필요한 종친 인사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1880년 양력 4월 일본에서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와 면담했던 李東仁은 고종·명성왕후·이최응·민태호 네 사람이 국무를 주도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³⁰⁾ 이러한 언급을 참고하면 별입시는 기본적으로 여흥 민씨와 종친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조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별입시는 고종을 최측근에서 보좌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별입시와 武衛所와의 관계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고종은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방비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1874년 6월 무위소를 창설하였다. 무위소의 수장인 武衛都統使에게는 시위 임무뿐만 아니라 군사업무 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³¹⁾ 무위도통사는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의 제조를 겸하고 병조의 직할이었던 용호영과 서울 외곽의 방어를 담당하는 충융청도 관장하였다.³²⁾ 그런데 별입시 가운데 김병시·민겸호·민태호가 이

대원군을 견제하기 위해 기용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韓史繫』 권5, 太上皇紀 甲戌 11년(1874), 286~287쪽.

28) 黃炫, 『梅泉野錄』, 23쪽.

29) 『承政院日記』 高宗12년 5월 10일.

30) 李光麟, 「開化僧 李東仁」에 관한 새史料, 『동아연구』 6, 1985, 477쪽. 이광린은 면담을 했던 때가 1879년이라고 소개했는데 김종학은 1880년이라고 밝혔다. 김종학, 『개화당의 기원과 비밀외교』, 일조각, 2017, 81~82쪽 참조.

31) 무위소에 대해서는 崔炳鈺, 「朝鮮朝末의 武衛所研究」, 『군사』 21, 1990 참조.

처럼 중앙 군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던 무위도통사에 올랐으며, 김보현·김병시·윤자덕·민겸호는 무위소 제조에 임명되었다.³³⁾ 별입시 인사들이 무위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던 것인데 양자의 관련성은 무위소에 소속된 知穀官廳에서 1880년 12월 24일 별입시 6곳에 사슴 1마리씩 보낸 것으로 되어 있던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³⁴⁾ 「성두후내외상격발기」에 같은 물품을 하사받았던 별입시가 6인이었는데 사슴을 받은 6처도 혹시 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짐작되기도 한다.

별입시는 고종의 취약한 정치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등장한 것이었는데 등장 직후부터 존재가 알려졌다. 崔益鉉(1833~1906)은 1876년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통신사를 파견하는 것이 수상이나 별입시 무리가 간사한 주장을 굳히려고 꾸민 계략인 것 같으며 우려를 표명하였다.³⁵⁾ 별입시가 생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정부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한 자료에는 1880년 10월 별입시 윤자덕·김병시·정범조가 입시하자 고종이 조선 중기의 문신 朴震英의 포상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³⁶⁾ 고종이 별입시와 사소한 문제까지도 상의했음을 보여 준다.

32) 殷丁泰, 「高宗親政 이후 政治體制의 改革과 政治勢力의 動向」, 『한국사론』 40, 1998, 170쪽.

33) 무위소의 무위도도통사와 무위소제조는 대체로 고종의 별입시로 국왕과 수시로 접촉하며 재정문제를 중심으로 기무에 참여했다. 은정대, 위의 논문, 172쪽.

34) 『知穀官廳憲日記』(장서각 K2-3375) 庚辰(1880) 12월 24일, “別入侍六處 各鹿一首”.

35) 崔益鉉, 『勉菴集』 권15, 「答永祚」(丙子 1876년 윤5월 14일), a325-364b.

36) 朴震英, 『匡西先生實記』(한국학종합DB) 권1, 「內閣奉藏尊周量編本傳」, 468쪽, “翌日 別入侍臣 尹滋惠·金炳始·鄭範朝入侍”.

Ⅲ. 1880년대 개화정책 추진과 별입시의 변화

1880년 말 정부는 본격적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통리기무아문을 신설하였다. 영의정 이최응과 좌의정 金炳國을 수장이라 할 수 있는 총리대신에, 金輔鉉·閔謙鎬·尹滋惠·鄭範朝·李載蕪·金炳德·趙寧夏·申正熙·閔泳翊·金弘集 등 10명을 당상에 임명하였다.³⁷⁾ 아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직책인 당상에 김보현·윤자덕·정범조·이재궁 등 별입시 4인이 포함되고, 이재궁의 부친 이최응이 총리대신을 맡았던 데서 볼 수 있듯 별입시는 통리기무아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얼마 후에는 심순택이 당상에 추가 임명되었다. 이후 통리기무아문 당상의 구성에 변화가 나타나 여러 민씨 인물이 통리기무아문 소속 각사에 배치되었다.³⁸⁾ 여흥 민씨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별입시 가운데 일부는 개화정책에 직접 관여하기도 하였다. 通商司의 經理事로 있던 김보현이 1882년 4월 전권대관 자격으로 부관 김홍집과 함께 조일통상장정 협상을 벌였던 것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별입시는 통리기무아문의 당상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보수 세력과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로 발생한 임오군란 당시 별입시는 민씨와 함께 공격을 받았다. 金衡圭(1861~1935)는 『靑又日錄』에서 난군들이 민씨 및 별입시 집안을 부수었다고 하였다.³⁹⁾ 별입시 가운데 민겸호와 김보현이 난군들에게 살해당했고, 윤자덕은 가옥이 파괴되었다. 이재궁의 부친 이최응 또한 목숨을 잃었다. 정범조도 난군들에게 잡혔는데 정원용의 손자여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난군들은 정원용이 비록 별입시지만 정원용의 은혜를 잊을 수 없다면서 풀어주었다는 것이다.⁴⁰⁾

37) 『承政院日記』 高宗17년 12월 22일.

38) 崔賢淑, 『開港期 統理機務衙門의 設置와 運營』,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16쪽.

39) 金衡圭, 『靑又日錄』(한국사료총서 제22집), 1882년 6월 10일, 375쪽, “軍兵皆破閔氏家及別入侍家入倭使金弘集家 國家寒心 寧至此哉”.

당시 별입시가 특정 직임을 가진 인물들로 이해되고 있었으며 난군들은 그런 별입시에 상당한 반감을 지니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⁴¹⁾

임오군란 수습 후 군란 때 혁파된 통리기무아문을 대신하여 통리군국사무아문과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이 신설되었다. 민태호·윤자덕·김병시·정범조 등이 통리군국사무아문의 최고 지위인 督辦에 임명되었다. 표면적으로는 별입시 인사들의 지위가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1884년 6월 이후 독판 업무를 수행한 인물은 민태호·김유연·조영하 3명이었고 그 가운데도 특히 민태호가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⁴²⁾ 외교 관계 업무를 전담했던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에는 외유 경험이 있는 이들이 주로 임명되었다. 김병시가 유일하게 독판으로 참여했지만 외무 업무에 종사한 일이 없어 어떤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⁴³⁾

임오군란으로 인해 별입시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이들이 별입시가 되었다. 洪在羲(?~1895)처럼 명성왕후를 보호한 공으로 별입시가 된 경우도 있었지만⁴⁴⁾ 주목되는 것은 개화 성향의 인사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40) 朴周大, 『羅巖隨錄』(한국사료총서 제27집), 「追錄」, 273쪽, “鄭範祖舉面曰 我是會洞鄭政丞孫子也 軍士曰 台雖別入侍者 而吾輩詎敢忘鄭相國大監乎”.

41) 은진 유학 崔載淵은 소를 올려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임금을 호위한 자는 趙寧夏·金炳始·閔謙鎬·金輔鉉·閔台鎬·李憲植·尹滋憲·鄭範朝 뿐이었다며 비상한 전례를 통해 보답하라고 청하였다. (『承政院日記』 高宗19년 9월 5일) 개화에 비판적이었던 유림이 개화정책에 참여했던 인사들을 칭송한 것은 다소 의외이다. 별입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희석하려는 의도가 있는 상소가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42) 崔賢淑, 앞의 논문, 1992, 39쪽. 민태호의 딸은 1882년 2월 왕세자빈에 책봉되었다.

43)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 독판에 대해서는 田美蘭,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 關한 研究」, 『이대사원』 24·25, 1989, 227~228쪽 참조.

44) 『公文雜纂』, 「朝鮮國前兵使洪在羲狼川縣監ニ任セラレタル件并ニ國王殿下春川ノ行宮ニ移御ノ風説ニ關スル件」(明治25年 1892년 2월 8일). 임오군란 당시 명성왕후를 보호했던 李容翊도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별입시가 되었으며, 후술하겠지만 역시 임오군란 때 명성왕후의 눈에 들었던 李根澤의 경우 본인이 별입시는 아니었지만 주변인들이 별입시로 기용되었다.

여 외무아문 고문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의 다음 언급이 참고 된다.

국왕이 해외 사정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었기 때문에 청국 또는 일본을 여행한 많은 사람들이 궁중에 들어와 수시로 왕을 가까이서 대하게 되었는데 이를 가리켜 별입시라고 불렀다. 대원군의 난이 평정된 후 별입시의 수가 나날이 늘어났다. 조정의 고위 관리들도 이들과 서로 결탁하여 국정에 관여했다. 별입시 가운데 全良默·鄭秉夏와 같은 사람은 항상 미국공사관을 출입하고, 金鏞元(金鏞元의 誤記 : 필자 주)·金鶴羽는 예전부터 러시아와 가까웠으며, 趙存斗·金嘉鎭은 청국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일본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서광범·홍영식 등도 별입시였다. 러시아당과 일본당은 각각 별입시를 통해 마음을 움직이려고 한 것으로 생각된다.⁴⁵⁾

해외 사정에 밝은 인사들이 별입시에 기용되었다는 것이다. 후일에 집필한 회고록이므로 물론 사료의 정확성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별입시라고 특별히 언급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별입시와 구분하기 위해 인용문에서 언급된 전양목 등을 ‘신 별입시’, 기존의 별입시를 ‘구 별입시’로 부르기로 한다. 이노우에는 신 별입시가 해외 사정에 밝은 인사들이라고 소개했는데 이들의 면면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徐光範(1859~1897)은 1882년 초 고종의 밀명을 받고 차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김옥균과 함께 일본에 건너간 바 있다. 임오군란 후에는 수신사의 종사관 자격으로 파견되었다가 수신사행에 별도로 참여했던 김옥균과 함께 일본을 시찰하기도 하였다. 1883년에는 보빙사절단의 종사관으로 미국에 다녀왔다. 홍영식은 민영익의 집을 드나들던 이른바 ‘八學士’ 가운데 한 사람으로 조사시찰단의 일원으로 참여하였으며, 1883년에는 보빙사절단의 부대

45) 井上角五郎 저·한상일 역, 『서울에 남겨둔 꿈』, 건국대학교출판부, 1993, 43쪽.

신으로 미국에 다녀왔다. 김옥균과 민영익이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1880년대 초반 시기에 서광범과 홍영식은 김옥균과 민영익의 후원 하에 활발한 외교 활동을 벌였다.

金鏞元(1842~1892)은 화원 출신으로 1876년 무위소 군기 조성에 참여한 바 있다.⁴⁶⁾ 김용원은 민영익의 집에 출입하던 인물이기도 하다.⁴⁷⁾ 1876년에는 수신사 金綺秀를 수행하여 일본에 건너가 사진술을 배워왔다. 『별건곤』에는 김용원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채봉틀을 사용한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다. 1877년경 상업을 위해 일본에 갔다가 서양인에게 채봉틀을 사가지고 와서 사용했는데 이를 보기 위해 구경꾼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한다.⁴⁸⁾ 1880년 무위소 군물 조성 때 감독을 맡는 등⁴⁹⁾ 무위소와 관련을 맺고 있었다. 1881년에는 조사시찰단 조사 자격으로 일본에 파견되어 다양한 근대 과학기술을 습득하였다. 일본 체류 시 조선 고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세계에 조선처럼 貧賤한 나라가 없다면 이 이용후생의 방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⁵⁰⁾

이노우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무위소 소속의 別選軍官 尙稷鉉도 별입시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1882년 9월 예조 좌랑 李斗永이 소를 올려 전 별선군관 상직현과 李明宇가 별입시라고 떠들고 다니며 험잡질을 한다며 이들을 처벌하도록 요청하였다.⁵¹⁾ 이 상소는 김해에 사는 裴燮이라는 이가 성직현과 이명우에게 앙심을 품고 이두영의 이름을 도용해 올린 것으로 판명이 났다. 만약 두 사람이 별입시가 아니었다면 배전이 굳이 별입시라고 거론하

46) 『承政院日記』 高宗13년 8월 21일.

47) 許東賢, 『近代韓日關係史研究』, 국학자료원, 2000, 55쪽.

48) 觀相者, 「各界各面 第一 먼저 한 사람」, 『別乾坤』 제16·17호, 1928년 12월. 여기에서는 김용원이 강원도 金化 사람이라고 하였다. 김용원의 행적에 대해서는 鄭秉峻, 「金奎植의 부친 金鏞元의 가계와 생애」, 『한국근대현대사연구』 73, 2015 참조.

49) 『承政院日記』 高宗17년 12월 19일.

50) 李光麟, 「開化期 知識人の 實學觀」, 『동방학지』 56, 1987, 518쪽.

51) 『承政院日記』 高宗 19년 9월 3일.

지는 않았을 것이다. 두 사람 가운데 성직현은 김용원과 마찬가지로 무위소에 소속되어 기술 관련 업무를 맡아 보았던 인물이다. 『지구관청현일기』에 1879년 8월 그를 별선군관에 임명하여 제철 관련 기술을 배우도록 의주에 파견했다는 내용이 있다.⁵²⁾ 1880년에는 수신사 김홍집 일행을 따라 일본에 다녀왔는데 그 전에 청나라에도 사행한 일이 있었다.⁵³⁾ 배전이 명의를 도용해 올린 상소에는 1881년에 상직현이 수차를 만들어 궁궐에 전시했다는 내용도 있다. 이런 행적으로 보아 성직현은 김용원과 마찬가지로 별입시 자격으로 과학 분야에 종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⁵⁴⁾

鄭秉夏(1849~1896)는 일본어 역관 출신으로⁵⁵⁾ 劉大致 문하에서 공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시찰단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오사카에 파견되어 광산·조폐·제철·제혁기계 구입 등의 업무를 맡아 보았다.⁵⁶⁾ 당시 정병하의 조카 孫鵬九도 조사 김용원의 수원으로 동행했는데 손봉구는 조선에서 가장 먼저 양복을 착용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⁵⁷⁾ 개화적 사고를 지니고 있던

52) 『知穀官廳憲日記』 6, 高宗 16년 8월 6일·8월 9일. 상직현의 직임이 雷粉看役로 되어 있어 무위소에서 화약 관련 업무를 맡아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는 1903년 軍部砲工局長으로 근무하였다.

53) 『사료고종시대사』 10, 「일본 『도쿄니치니치신문』, 서울을 출발한 수신사 일행과 부산의 동래부에서 곤도 영사가 만났으며 수신사 일행에 대해 보도함」(1880년 7월). 상직현의 아들 尙灑은 領選使의 工徒 자격으로 청에 건너가 電氣創에 소속되어 학습하였다.

54)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別乾坤』에는 고종이 신변 보호를 위해 장사를 선발할 때 상직현과 윤응렬이 선발 업무를 맡아보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絶世之勇! 超人間的怪力! 擊天蹴地の 八壯士頭領, 天地壯士李季暎老人의 弱冠時代」, 『別乾坤』 제21호, 1929년 6월 23일) 윤응렬은 1880년 상직현과 함께 수신사행에 참여한 바 있다.

55) 『韓史纂』 권6, 「太上皇紀紀」 乙未(1895), 321쪽.

56) 宋炳基, 『近代韓中關係史研究-19世紀末의 聯美論과 朝清交涉-』, 단대출판부, 1985, 147~148쪽. 정병하는 1887년에는 礦務局 幫辦에 임명되었다.

57) 觀相者. 「各界各面 第一 먼저 한 사람」, 『별건곤』 제16·17호, 1928년 12월 1일. 손봉구는 일본에 있을 때 머리와 옷을 서양식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李鏞永, 『敦窩集略』中(한국사료총서 제53집) 釜署集略(上) 「日記」(1883년 12월 19일).

정병하는 귀국 후 1884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주사에 임명되었다. 입시켰을 때 응대를 잘하여 고종의 눈에 들었고 일을 잘 처리하여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고 한다.⁵⁸⁾

金嘉鎮(1846~1922)은 서얼 출신으로 일본어와 중국어에 능통했고 영어로 의사소통도 가능할 정도로 어학에 뛰어났다. 역시 서얼 출신이었던 李祖淵(1843~1884)의 추천을 받아 1883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주사에 임명되었다.⁵⁹⁾ 1885년 8월에는 중앙으로 전보되어 내무부 주사로 임명된 후 고종의 각별한 관심을 받아 주야로 3번이나 고종을 면대하여 의견을 올렸다고 한다.⁶⁰⁾ 이때가 별입시로 활동했던 시기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金鶴羽(1862~1894)는 선대가 함경도 지방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계속 거주했던 土班 출신이다. 1870년대 초 큰 흉년이 들자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주한 뒤 그 곳에서 성장하였다. 1876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약 1년 반 동안 동경에서 우치무래[內村直義]의 무급 어학교사 자격으로 체류하였다. 그는 만주의 길림과 중국 북경에도 드나든 적이 있어 비교적 해외사정에 밝았고 일본어와 중국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할 정도로 어학에 능통하였다.⁶¹⁾

索良默은 1883년에 일본에 건너가 경응의숙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는 것 말고는 알려진 것이 없다.⁶²⁾ 趙存斗는 평양 조씨 가문의 무인인데 역시 알려

58) 金允植, 『雲養續集』 권4, 墓表 「農商工部大臣鄭君秉夏墓表」.

59) 吳瑛燮, 『東農 金嘉鎮의 開化思想과 開化活動』, 『한국사상사학』 20, 2003, 256쪽. 이조연은 박규수의 문하에서 배웠는데 임오군란 후 일본 측의 배상 요구에 적극 항변하여 고종의 신임을 얻었다고 한다.(『韓史繫』 권6, 「太上皇紀」 壬午 19년, 298~299쪽) 윤치호는 이조연을 韓圭稷과 함께 近侍者로 분류했는데(『尹致昊日記』1, 한국사료총서 제19집, 1884년 4월 18일, 63쪽) 신 별입시 인사들이 별입시가 될 수 있었던 데는 이조연과 같은 이들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60) 吳瑛燮, 위의 논문, 262쪽.

61) 李光麟, 「舊韓末 露領 移住民의 韓國政界 進出에 대하여-金鶴羽의 活動을 中心으로」, 『역사학보』 108, 1985, 54~56쪽.

62) 朴已煥, 「근대초기 한국인의 일본유학」, 『일본학보』 40, 1998, 238쪽 ; 시부이 유미코, 「초기 한국인의 일본유학(1881-1905)-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 중심으로-」, 한

진 것이 없다.⁶³⁾

신 별입시는 여러 가지 점에서 구 별입시와는 차이가 있었다. 구 별입시가 명문가 출신의 과거급제자였던 데 반해 신 별입시는 서얼 내지 非사족 출신이었으며 문과급제자는 거의 없었다. 외유 경험이 있고 어학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구 별입시와 다른 부분이다. 본격적으로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 능력을 갖춘 이들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사족 출신이 많이 기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종은 임오군란이 수습된 직후 청에 개혁 구상을 담은 「先後事宜六條」를 보냈는데 그 가운데 ‘用人才’에서 문벌과 과거를 숭상하는 폐습을 고쳐 인재용을 기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실제 얼마 후 고종은 문벌을 숭상하는 것은 천리의 공평한 이치가 아니라며 서북인·송도인·서얼·의원·역관·서리 등도 모두 현직에 통용하라는 교서를 내렸다.⁶⁴⁾ 신 별입시는 이러한 고종의 인사 기용책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신 별입시가 활동을 시작한 것은 1883년 이후였다. 김가진은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 주사로 근무하던 1883년 초 서양 담배제조회사인 順和局을 설립하는데 김용원과 함께 관여하였다. 김학우는 1884년 초 機器局 위원에 임명된 후 전신기술 습득을 위해 일본에 갔다가 1885년에 돌아와 典圖書院 위원을 겸했으며, 1888년에는 鍊武公院 사무가 되었다.⁶⁵⁾ 전양목은 일본에서 돌아와 1885년 3월에 濟衆院 주사로 임명되었다.⁶⁶⁾ 이노우에는 별입시 김가진·정병하·조준두·김학우·閔有用 등이 궁궐에 수시로 출입하며 제각기 가문의 이

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17쪽. 전양목의 아들 全圭煥은 法語學校에서 공부하고, 1899년 郵遞學校에 선발된 후 우체 업무에 종사하였다. (‘근현대인물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63) 조준두의 초명은 趙存八인데 1880년 개명하였다. 『承政院日記』 高宗17년 6월 30일.

64) 『高宗實錄』 卷19, 高宗19년 7월 丙午.

65) 김학우에 대해서는 李光麟, 앞의 논문, 1985 참조.

66) 정병하의 조카 손봉구도 함께 제중원 주사에 임명되었다.

익을 도모하고, 典圖局·火藥局·牧畜場·英學校·濟衆院·鑛務局을 신설할 때 이를 핑계 삼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멋대로 국고를 낭비했다고 지적하였다.⁶⁷⁾ 별입시 인사들이 각 기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노우에도 거론할 만큼 주목되는 존재였다.

신 별입시는 갑신정변을 계기로 노선을 달리하였다. 서광범과 홍영식은 정변에 참여했던 반면 김용원과 김가진은 개화파와 관련 깊었지만 정변에는 가담하지 않았다.⁶⁸⁾ 그 결과 김옥균과 연결되어 있던 신 별입시는 축출되었고, 그렇지 않았던 이들은 정변 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편 李範晉(1852~1910)처럼 명성왕후를 보호한 공으로 內別入侍가 된 경우도 있었다.⁶⁹⁾

구 별입시는 임오군란에 이어 갑신정변 때도 피해를 입었다. 개화파는 “대신들과 별입시가 출입하는 금호문 밖에 申福模가 지휘하는 忠義契 43명을 매복시켰다가 閔台鎬·閔泳穆·趙寧夏 등이 화제에 대한 문안차 입궐하면 즉시 처치한다.”⁷⁰⁾는 계획을 세웠다. 민씨로 대표되는 친청파 대신과 별입시가 공격 목표로 삼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갑신정변의 와중에 구 별입시 민태호는 결국 정변 세력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예천 함양 박씨가의 일기에는

67) 井上角五郎 저·한상일 역, 앞의 책, 1993, 69쪽. 閔有用이 어떤 인물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68) 김용원은 일본 신문에 開國黨의 일원으로 소개되었고(鄭秉峻, 앞의 논문, 2015, 25~26쪽), 김가진은 일본당 내지 개화당으로 분류되었다.(『統監府文書』 8권, 「韓國 官人の 경력 일반」)

69) 『韓史纂』 권6, 「太上皇紀」 丙戌(1886) 23년, 303~304쪽. 오영섭, 앞의 논문, 2005, 15쪽 참조.

70) 金玉均, 「甲申日錄」, 1884년 12월 1일. 1884년 부호군 池見龍은 소를 올려 정식대로 일을 처리하면 될 것인데 무슨 별입시할 일이 있어서 밤낮없이 예사로 출입하느라 金虎門을 새벽이 되어서야 닫는 것이냐고 지적한 바 있다.(『承政院日記』 高宗21년 6월 6일) 금호문은 昌德宮 돈화문의 서쪽 문으로 주로 대신들이 출입할 때 이용했는데 별입시는 이 문을 통해 궁궐을 출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갑신일록』을 참고하면 池見龍이 언급한 별입시는 구 별입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갑신정변으로 ‘別入侍宰相’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10여인이 된다고 되어 있다.⁷¹⁾ 소문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살해당한 인사들 가운데 민태호 외에 구 별입시 인물이 더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갑신정변으로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고종은 자신의 책임을 시인하며 국가의 정무에 관여하지 않고 의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기를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⁷²⁾ 의정부는 영의정 심순택, 좌의정 김홍집, 우의정 김병시로 구성되었다. 일종의 비상 내각이라 할 수 있는데 구 별입시 심순택과 김병시가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청의 입김이 강했던 상황이므로 청을 의식하여 두 사람을 기용했던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김병시의 경우 오랫동안 섬긴 청을 배반하고 서양에 경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고종에게 이 점을 강력히 언급하는 등 친청적 성향을 지녔던 인물이다.⁷³⁾

한편 정치적 수서에 몰린 고종은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러시아와의 외교적 접촉을 시도하였다. 이 임무를 맡았던 인물이 신 별입시 김용원으로서 그는 1884년 11월 블라디보스톡에 밀사로 파견되었다. 김용원 등은 고종의 지시로 연해주 지방 총독(남우수리 국경감독부의) 베네프스키 대령을 방문하여 다른 국가로부터 수모를 당하면 러시아가 조선을 보호해줄 것, 러시아 군함이 조선의 바다를 보호해 줄 것 등을 요청하였다.⁷⁴⁾ 베네프스키는 조선의 요청 사항을 러시아 황제에게 보고했고 이에 황제는 조약 비준을 위해 조선에 사절을 파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무를 마친 김용원 일행은 1885년 5월 러시아 황제의 답신을 가지고 귀국하였다. 이른바 ‘제1차 조로밀약’으로 칭해지는 러시아와 비밀 교섭이다. 조선과 러시아의 결탁을 경계하던

71) 『小宅日記』 七(규장각한국학연구원), 1884년 10월 25일.

72) 『高宗實錄』 卷21, 高宗21年 11월 庚午.

73) 金炳始, 『蓉菴集』 권10, 書 「與沈領相舜澤書」. 연갑수, 앞의 논문, 2008, 114~115쪽 참조.

74) 박 보리스 드리트리에비치 저·민경현 역, 『러시아와 한국』, 동북아역사재단, 2010, 293~294쪽.

청과 일본에 알려지면서 러시아와의 밀약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그러자 조선 정부는 김용원 등을 왕명을 사칭한 죄로 유배형에 처하여 사태를 매듭지었다.⁷⁵⁾ 김용원은 유배형을 받았지만 비밀을 유지하여 별입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고종은 1885년 3월 청과 일본 간에 천진조약이 체결되어 조선을 둘러싼 양국 간의 대립이 진정되자 국정 운영을 주도하고자 하였다. 內務府는 그러한 의도에서 설치한 것인데⁷⁶⁾ 고종은 내무부에 여흥 민씨 인사들을 기용하여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삼아 국정을 운영하며 친청파를 견제하였다. 그로 인해 심순택과 김병시의 정치적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심순택은 내무부를 설치할 때 고종으로부터 일을 잘 처리하라는 부탁을 받은 바 있다.⁷⁷⁾ 내무부의 총리대신은 삼정승이 겸직하게 되어 있어 심순택·김병시 등은 정승 자격으로 총리대신을 맡았지만 내무부의 권한이 확대되자 이들은 불만을 표하였다.⁷⁸⁾ 앞서 본 것처럼 김병시의 경우는 친청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종의 친러정책에도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다. 구 별입시는 고종과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고종은 국정을 주도하려는 상황에서 ‘제1차 조로밀약설’이 탄로나 청의 압박이 거세지자 다시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자 하였다. ‘제2차 조로밀약설’인데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러하다. 내무부 주사 김가진·김학우·전양목, 러시아어 통역 蔡賢植 등은 러시아세력을 끌어들여 청나라를 견제하고자 하는 명성왕후와 閔泳煥·閔應植 등의 요청으로 러시아공사관에 왕래하면서

75) 『高宗實錄』 卷22, 高宗22년 6월 庚辰. 井上角五郎 저·한상일 역, 앞의 책, 1993, 63~64쪽.

76) 내무부의 성격에 대해서는 韓哲浩, 「閔氏戚族政權期(1885~1894) 內務府의 組織과 機能」, 『한국사연구』 90, 1995; 韓哲浩, 「閔氏戚族政權期(1885~1894) 內務府 官僚研究」, 『아시아문화』 12, 1996 참조.

77) 『承政院日記』 高宗22년 5월 25일.

78) 韓哲浩, 앞의 논문, 1996, 257쪽.

러시아공사 웨베르와 접촉하였다. 이들은 웨베르에게 조선을 보호하고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는데 협조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자 웨베르가 증거문서를 요구했고 이에 조선 정부는 總理內務府事 심순택 명의의 문서를 만들고 국새와 총리내무부사의 인장을 날인하여 웨베르에게 보냈다. 이것이 밀약설의 대략인데 민영익이 이를 원세개에게 알리면서 원세개가 고종의 폐위책을 제기하는 등 큰 파장이 일었다.⁷⁹⁾

‘제2차 조로밀약설’은 내막이 복잡하여 그 실상을 확인하기 쉽지 않은데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자 고종은 조준두·김가진·김학우·전양목 등이 사적으로 벌인 일이라며 이들을 遠惡定配하도록 명하였다.⁸⁰⁾ 그러자 러시아 공사 웨베르는 근거도 없이 아무 죄가 없는 인물들을 처벌하면 양국 친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⁸¹⁾ 사적으로 벌였다는 것은 접촉이 있었음을 시인하는 것이므로 러시아 측에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고종은 곧바로 조준두 등을 석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조준두 등은 실제 러시아 측에 보호를 요청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신 별입시는 당시 고종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던 인물들이다. 윤치호는 1886년 7월 일본 신문에 우리나라 별입시 가운데 정병하·김학우·김가진·전양목이 임금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기사가 실린 것을 보고 濟濟多士라고 할 만한 이들이라 왕조가 안락할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낸 바 있다.⁸²⁾ 그런 위치에 있던 신 별입시가 고종의 허가 없이 사적으로 러시아 측과 접촉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고종은 제1차

79) 제2차 조로밀약설에 대해서는 伊藤博文編, 『秘書類纂朝鮮交涉史料』 下, 124~126쪽 ; 박 보리 드미트리예비치 저·민경현 역, 『러시아와 한국』, 동북아연구재단, 2010, 314~320쪽 ; 任桂淳, 『韓·露密約과 그 후의 韓·露關係(1884~1894)』, 『韓露關係100年史』, 한국사연구협의회, 1984, 98~111쪽 참조.

80) 『承政院日記』 高宗23년 7월 17일.

81) 『舊韓國外交文書』 17, 俄案1, 문서번호 29, 高宗 23년 7월 23일.

82) 尹致昊저·宋炳基역, 『國譯 尹致昊日記』 下, 1886년 7월 8일, 탐구당, 1975, 74쪽. 윤치호는 서얼 출신이었기 때문인지 신분에 상관없이 능력 있는 인사를 기용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조로밀약설 때와 마찬가지로 신 별입시에게 책임을 돌려 사태를 수습하였다. 조존두 등이 중앙의 고위 관료였다면 그들이 사적으로 추진했다는 해명이 통하지 쉽지 않았겠지만 그런 지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천한 부류가 제멋대로 벌인 일이라고 둘러댈 수 있었을 것이다. 신 별입시를 비밀 외교에 활용한 데는 그런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 짐작이 된다.

신 별입시는 석방된 뒤에는 주로 개화와 외교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 조존두는 沿海監務에 임명되었고, 김학우는 轉運郎廳·鍊武公院 사무 등을 역임하였다. 전양목은 駐劄日本書記官·연무공원 사무·전환국 위원 등으로 활동하였으며,⁸³⁾ 김가진은 청을 견제하려는 고종의 의도에 따라 參贊官으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처벌을 받지 않았던 정병하의 경우는 교섭아문 參議로 있으면서 轉運局 總務官을 겸하였다. 만약 신 별입시가 사적으로 조로밀약을 추진했다면 이렇게 계속 관직을 맡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한편 청은 고종의 반청 외교를 뒷받침하고 있던 신 별입시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주한일본공사관 서기관 고무라 주타로[高平小五郎]가 1887년 7월에 올린 보고서에 따르면 민영익이 귀국하여 고종에게 10조의 내정개혁안을 제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조 가운데 하나가 별입시를 폐지하라는 것이었다.⁸⁴⁾ 민영익의 이러한 요구는 원세개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1887년 7월 원세개는 이홍장에게 올린 보고서에서 김가진·전양목 등이 중심이 된 개화를 도모하는 자들이 청을 배반하고 조선과 청을 대등한 관계로 보고자하며, 聯英美·結俄倭해서 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 한다고 알렸다.⁸⁵⁾ 신 별입시가 고종의 반청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판단한 청은 별입시의 포섭도 시도하였다. 가령 정병하의 경우 1887년 말부터 원세개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선과 청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양국 간

83) 전양목은 1888년에 전환국 위원으로 製紙機器 구입 계약을 주관한 일이 있다. 「製紙機器購買契約」(奎23065)

84) 伊藤博文 編, 『朝鮮交涉資料』中, 「閔泳翊革政條奏ノ事」(明治 20년 7월 4일), 68-69쪽.

85) 具仙姬, 『韓國近代 對清政策史 研究』, 혜안, 1999, 166쪽.

교섭 창구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⁸⁶⁾ 하지만 청의 포섭책은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한 듯 원세개는 1888년 3월에 이홍장에게 별입시 문제를 다시 거론하였다. 궁실에 출입하는 군소배들이 날로 많아져 별입시라 칭하면서 마음대로 궁궐에 출입하는 자가 100여인에 이르며, 예전 별입시 가운데는 사체와 시체를 아는 자들이 있어 전후 기미를 살펴 外官으로 나가 스스로 보전하고자 했는데 지금은 별입시가 도리를 전혀 모르고 모두 하류 비천하여 아침하고 영합할 뿐이라는 것이다.⁸⁷⁾ 친청적 성향이 다분했던 구 별입시와 달리 신 별입시가 반청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던 데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영남 학인 朴致馥(1824~1894)이 별입시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그는 1888년 조정에서 육영공원을 설치하여 공경가의 자제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별입시를 만들어 私門을 크게 열었다고 비판하였다.⁸⁸⁾ 사적인 통로를 열었다고 한 것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별입시는 신 별입시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신 별입시 가운데 상당수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관계에 진출했던 것을 생각하면 박치복의 지적이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다. 새로운 지식을 갖춘 인물을 기용하기 위해서는 과거제의 개혁이 필수적이었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충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86) 權錫奉, 『清末 對朝鮮政策史研究』, 일조각, 1986, 354쪽; 권혁수, 『19세기말 한중관계사연구』, 백산자료원, 2000, 225쪽.

87) 『清季中日韓關係史料』 제5권, 2565쪽, “向年別入侍中 或有稍知事體時勢者 俱先後見幾 圖求外官 冀以自保 而今之別入侍中 更無一稍識道理吳鄰 皆下流昇汚巧誤”.

88) 朴致馥, 『晚醒集』 권4, 疏 「上時弊疏」, b136-442cd, “且朝廷者太祖康獻王之朝廷也 關石和勻 王府則有 而一自別入侍之冊也 檢細宵小巫祝瞽史 魍魎潑皮醫卜 星命諸左道雜色 莫不揜腕遊談 掉臂直入 口含天憲 手握王爵 炙手勢熱 氣焰可畏 臣未如此輩果能出典入謨 繩愆糾繆 納吾君於無過之地 躋斯世於大同之治乎”.

Ⅳ. 1890년대 중반의 정국 변동과 별입시의 동향

1894년 동학군 진압을 위해 조선 정부가 청에 원병을 요청하자 일본도 조선에 파병한 후 내정 개혁을 요구하였다. 이에 고종은 일본의 압력을 차단하기 위해 6월에 선제적으로 校正廳을 설치하고 시원임 대신을 總裁로 임명하였다. 총재로 임명된 인물은 심순택·김홍집·김병시·조병세·정범조 등이었다. 심순택·김병시·정범조 등 구 별입시 인사들이 시원임 대신의 자격으로 총재관이 되었는데 고종은 이들을 내세워 일본의 간섭을 배제하고 민심을 수습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정청을 통해 일본을 견제하려는 고종의 시도는 일본이 갑오변란을 도발하여 경복궁 점령하는 바람에 무산되었다. 김홍집 중심의 친일 내각이 조직되고, 군국기무처가 설치되면서 교정청은 결국 폐지되었다.

군국기무처에는 구 별입시 인사들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김병시는 군국기무처 설치에 대해 경장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임금이 옥을 당하면 신하가 죽는 의리에 어두운 것이 통탄스럽다고 밝히기도 하였다.⁸⁹⁾ 구 별입시가 배제된 반면 신 별입시의 경우 김가진이 외부아문 협판, 김학우가 법무아문 협판, 정병하가 농상아문 협판에 각각 임명되었다.⁹⁰⁾ 구 별입시와 성향이 달랐지만 역시 고종의 측근이었던 신 별입시가 군국기무처에 참여한 것은 다소 의외이다. 김가진과 김학우는 개혁을 위해 일본군이 더 체류해줄 것을 희망했다는 일본 측 보고를 참고하면⁹¹⁾ 이들은 고종을 지원하기보다

89) 『東學亂記錄』上(한국사료총서 제10집), 「甲午實記」, 1894년 6월 29일, 20쪽. 金仁順, 「조선에 있어서 1894년 내정개혁 연구」, 『甲申甲午期の 근대변혁과 민족운동』, 청아출판사, 1983, 239쪽 참조.

90) 『承政院日記』高宗 31년 7월 15일.

91) 『駐韓日本公使館記錄』4, 「朝鮮國의 政情에 관한 정보보고」(1894년 6월 24일). 김가

내정 개혁에 더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후 김가진은 독립협회에 참여하였고, 정병하는 단발령 때 고종의 상투를 자르는 악역을 맡았다.⁹²⁾ 김학우는 보수와 대원군계에 의해 암살되고, 정병하는 아관파천 후 고종의 명으로 죽음을 당하였다.⁹³⁾ 이로써 고종 측근으로서 신 별입시는 사실상 존재감이 사라지게 되었다.

고종은 삼국간섭 이후 일본의 영향력이 약화된 틈을 타 군권을 회복하고자 하였고 그를 위해 宮內府를 활용하였다.⁹⁴⁾ 궁내부는 본래 군권을 제약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것인데 이를 군권 강화에 이용한 것이다. 궁내부에 특진관이 신설되고, 신진관료가 궁내부 관리에 기용되었다. 눈에 띄는 것은 특진관에 심순택·김병시·민영환·정범조·김영수 등 구 별입시가 대거 임명되었다는 사실이다.⁹⁵⁾ 특진관이 구체적인 활동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고종은 구 별입시 인사들을 자신의 지원 세력으로 활용하고자 했음을 볼 수 있다. 그런 가운데 고종은 아관파천을 통해 정치적 돌파구를 찾았다. 아관파천을 주도한 것은 친미파 민영환과 친러파 이범진이다. 민영환은 구 별입시이고 이범진은 갑신정변 이후 내별입시가 되었던 인물이다. 그런데 민영환이나 이범진과 달리 김병시와 정범조의 경우는 파천에 부정적이었다. 구 별입시는 애초 인식을 공유했던 집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 노선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데 아관파천이 그 계기가 되었다.

진의 경우 일본 측에서는 일본파로 분류하였다. 『駐韓日本公使館記録』 1, 「事變後大關内の動靜과 內政改革進行 및 外交上の變更」(1894년 7월 27일).

92) 반면 김병시의 경우 단발령에 반대하는 소를 올렸다. 『高宗實錄』 卷34, 高宗33년 1월 7일.

93) 김영수,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주한 일본공사 이노우에의 개입과 대원군의 정치적 몰락-이준용역모사건과 김학우암살사건을 중심으로-」, 『사림』 81, 2022.

94) 고종의 궁내부 활용에 대해서는 김영수, 「대한제국 초기 고종의 정국구상과 궁내부의 세력변동」, 『사림』 31, 2008 참조.

95) 『高宗實錄』 高宗 32년 5월 1일·윤5월 14일. 궁내부특진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는 吳蓮淑, 「大韓帝國期 宮內府特進官의 運用」, 『사학지』 31, 1998 참조.

아관파천으로 친일내각이 무너지자 고종은 사태 수습을 위해 김병시를 내각 총리대신에 임명하였다. 하지만 김병시는 아관파천에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입각을 거절하였다.⁹⁶⁾ 고종은 1896년 9월에는 내각을 폐지하고 의정부 부를 복설한 후 김병시를 의정, 김영수를 찬정에 임명하였다.⁹⁷⁾ 김병시는 의정부를 복설한 것을 경장으로 표현하며 환영하면서도 자신이 평상시에 고종에게 아침하는 말을 하지도 못했지만 선뜻 받아들여 시행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은근히 불만을 드러냈다.⁹⁸⁾ 또 典憲이 거의 변경되는 바람에 새로운 규정에 어둡고 일을 논의하면 옛것을 고집한다는 지목을 받고 모두 저지당하여 입을 열기조차 어렵다고 토로하였다.⁹⁹⁾ 김병시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이어서 갑오개혁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것이다.

아관파천에 반대했던 김병시와 정범조 등은 고종의 환궁을 모색하였다. 의정부가 복설되었지만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에 머물고 있어 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때문에 김병시는 자신이 허수아비처럼 구차스럽게 자리나 채우고 있을 뿐 국정을 전혀 살피지 못하고 있다면서 고종에게 환궁하도록 요청하였다. 또 바깥에 알리지 않은 조정의 사안들이 외국 신문에 보도되고 있다면서 소인들을 멀리하도록 간언하였다.¹⁰⁰⁾ 측근 인사들에 대한 통제를 요청한 것이다. 결국 김병시는 閔泳駿(1852~1935) 등과 연계하여 고종의 환궁운동을 주도하였다.¹⁰¹⁾

96) 『駐韓日本公使館記錄』9, 「新政府의 現況 報告」(1896년 2월 24일) ; 「當國政府 部内の 動靜」(1896년 10월 30일).

97) 『高宗實錄』卷34, 高宗33년 9월 24. 복설된 의정부에는 의정을 두고 그 아래 참정·찬정·참찬 등의 관직을 배치하였다. 당시 의정부의 성격에 대해서는 오연숙, 「대한제국기 권력기구의 성격과 운영 대한제국기 의정부의 운영과 위상」, 『역사와 현실』 19, 1996 참조.

98) 『高宗實錄』卷34, 高宗33년 10월 9일.

99) 『高宗實錄』卷34, 高宗33년 11월 30일.

100) 『高宗實錄』卷34, 高宗33년 10월 22일.

101) 『駐韓日本公使館記錄』9, 「當國政府 部内の 動靜」(1896년 10월 30일)·「金 議政 奏議」

환궁운동은 각계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고종도 여론을 무시하지 못해 1897년 2월 경운궁으로 돌아왔다. 고종은 환궁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3월 16일 모든 일을 의정부에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밝혔다. 환궁운동을 주도한 김병시 등을 의식한 조치이며, 그들을 내세워 어수선한 정국을 수습 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갑신정변 후 정무에 관여치 않겠다면서 의정부에 정국 운영을 일임했던 것과 유사하다. 김병시는 시무를 아는 이를 선발하여 직무를 맡기고 잡스럽게 등용된 이들을 배척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정범조도 고종에게 의정과 각부 대신들을 만나 대책을 강구하고 간사한 소인배들을 배척하도록 요청하였다.¹⁰²⁾ 이들이 주로 문제 삼은 것은 李容翊(1854~1907)·金鴻陸(?~1898)이었다. 김병시 등이 건의한 일에 대해서는 주한일본공사관도 관심을 갖고 정보를 파악했는데 하였다. 공사관 보고에는 김병시가 특진관 조병세·정범조와 함께 입궐하여 대신들과 회의를 한 후 국정을 문란한 이용익과 김홍륙에게 중직을 맡긴 점, 김홍륙 등이 北道の 잡배를 궁중에 출입하게 하여 별입시라고 칭하고 있는 것 등을 거론했다고 되어 있다.¹⁰³⁾ 주로 고종 측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본 것이다.

김병시 등이 거론한 ‘소인배’ 혹은 일본공사관의 보고에 나오는 ‘북도의 잡배’는 주로 함경도 지방 인물들을 지칭한다. 일본공사관에서는 조선 정부 내에 김홍륙·이용익·金道一 등을 비롯하여 함경도인 10여 명이 있다고 언급 하였다.¹⁰⁴⁾ 회령 출신으로 김홍륙의 도움을 받아 궁중에 들어간 朱錫冕 같은 이도 그러한 부류에 포함될 것이다. 이들 함경도 출신은 대개가 친러파계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들이다. 김도일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성장하여 러시아에 능통해서 민영환이 러시아에 특명전권공사로 파견될 때 통역관으로 수행

에 관한 件(1896년 11월 14일)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1, 「國王還御의 原因과 還御後의 形勢」(1897년 3월 1일).

102) 『高宗實錄』 卷34, 高宗34년 3월 16일.

103)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2, 「雜件」(1897년 4월 6일).

104)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1, 「내각원과 寵臣간의 알력」(1897년 1월 20일).

한 바 있고,¹⁰⁵⁾ 주석면은 궁중에 들어간 후 이용익과 친밀하게 지내며 친러파로 활동하였다.¹⁰⁶⁾ 김병시 등은 의정부 체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고종 측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친러파의 견제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고종에게 소인배를 물리치도록 요청했다고 볼 수 있다.

고종은 의정부에 정무를 일임하겠다고 했지만 몇 개월 후에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 자리에 올랐다. 구 별입시 가운데는 심선택이 황제에 오를 것을 청하는 역할을 맡았다.¹⁰⁷⁾ 김병시 등이 대한제국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 수 없다. 대한제국이 성립되기 직전에 정범조가 사망하였고, 대한제국이 선포된 후인 1898년에는 김병시, 이듬해에는 김영수가 연이어 세상을 떠났다. 이로써 구 별입시 인사들은 거의 남지 않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는 어떤 인물들이 별입시 역할을 하였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김윤식의 언급이 참고 되는데 그는 1899년 당시의 별입시를 거론하면서 趙秉式(1823~1907)·申箕善(1851~1909)·閔泳柱(1846~?)·이용익을 ‘老別入侍’, 李根濤 형제·李漢英·崔榮夏를 ‘少別入侍’로 지칭하였다.¹⁰⁸⁾ 김윤식이 언급한 이들은 기존의 별입시와는 다른 새로운 인물들이다.

먼저 노별입시로 거론된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기로 하자. 조병식은 충청도관찰사 재직 시 탐학을 저질러 유배되는 등 처신에 문제가 있던 인물인데 1890년대 말에는 고종 측근에서 활동하였다. 고종을 황제로 추대할 때 여론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였고,¹⁰⁹⁾ 황국총상회장이 되어 황국협회를 배후

105) 「只今으로 三十一年前 露西亞에 大使갓든이약이, 솔납상투에 갓쓴 大使一行 그러나 國實의 待遇는 隆盛」, 『別乾坤』 제6호, 1927년 4월; 『駐韓日本公使館記錄』12, 「施政一斑·任免一束·雜件」(1897년 1월 18일).

106) 『統監府文書』8, 「韓國 官人의 경력 일반」.

107) 『高宗實錄』高宗 34년 9월 30일.

108) 金允植, 『續陰晴史』上(한국사료총서 제11집), 권9, 光武 3년(1899) 6월, 510쪽, “近日有老別入侍 趙秉式·申箕善·閔泳柱·李容翊也 少別入侍 李根濤·李根鎔兄弟·李漢英·崔榮夏等也 閔泳綺·俞箕煥爲中立牌 與李容翊相許”.

109) 『駐韓日本公使館記錄』12, 「皇帝稱號에 관한 上疏者의 運動」, 1897년 9월 27일.

에서 조종하여 독립협회를 타도하는데도 앞장섰다. 신기선은 갑신정변에 연루되어 유배되었다가 1894년 방송된 후 정계에 복귀하였고, 아관파천 후 학부대신·법부대신 등을 역임하는 등 고종의 신임을 받았다. 대신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반동적 정책을 추진하여 독립협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용익은 임오군란 당시 명성왕후를 보호한 공으로 신임을 받은 후 1897년 황실 재정을 총괄하는 내장원경에 발탁되어 친러파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민영주는 1895년에는 무죄배와 협잡하여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은 죄로 처벌받기도 했던 인물인데¹¹⁰⁾ 곧 방송되었고 대한제국 기에는 궁내부 특진관 등을 지냈으며 정치적으로는 조병식과 입장을 같이하였다. 노별입시는 정치적으로 고종파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은 소별입시 인물들이다. 이근호 형제는 이근호·이근택을 가리킨다. 이근호 형제는 무인 집안 출신으로 이들 형제 역시 모두 무과에 합격하였다. 이들의 고종의 눈에 띈 것은 아마도 이근택 때문일 것이다. 이근택은 고향 충주에 있던 중 임오군란 때 충주로 피난 온 명성왕후의 눈에 들어 출세를 하였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있을 때는 고종의 환궁을 도모하다가 유배를 가기도 했으며, 대한제국기에는 고종의 신임을 얻어 요직을 차지하였다.¹¹¹⁾ 이한영도 무과 출신으로 1899년 한성부판윤이 되었던 인물인데 일본 측 보고에 따르면 무녀 眞靈君의 손녀사위이며 이근택과는 형제의 연을 맺었다고 한다.¹¹²⁾ 최영하는 同文學 졸업생으로 1887년 육영공원 사참을 지낸바 있다. 춘생문 사건에 가담하였고 아관파천 때 고종을 따라 러시아공사관으로 가는 등 고종 측근으로 활동하였으며¹¹³⁾ 1899년 농상공부협판·외부협판

110) 『高宗實錄』 高宗 32년 3월 18일.

111) 이근택에 대해서는 오연숙, 「이근택, 기회주의적 처세술의 화신(化身)」, 『내일을 여는 역사』 19, 2005 참조.

112) 『統監府文書』 8, 「韓國 官人の 경력 일반」. 眞靈君은 명성왕후가 임오군란으로 피난했을 때 알게 된 무녀로 명성왕후가 총애하여 진령군으로 봉하였다. 『梅泉野錄』, 69쪽.

등을 역임하였다. 최영하를 제외하면 소별입시는 이근택과 관련된 깊었으며 모두 무과 내지 무인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김윤식은 민영주·민경식 부자¹¹⁴⁾·조병식·이용익·주석면·최영하·金永準¹¹⁵⁾ 등이 일당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하였고,¹¹⁶⁾ 윤치호는 민경식·최영하·이한영·이근택 등을 거론하며 이들이 친러파로 고종의 충견이자 최대 악마들이라고 맹비난하였다.¹¹⁷⁾ 당시 별입시의 상당수는 친러파였음을 알 수 있다. 주한일본공사가 본국 외무대신에게 보낸 보고서에서도 조병식·민영주·민경식·주석면·閔種默·洪鍾宇 등을 야심가로 지목하면서 이들이 러시아에 의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하였다. 민영주·민경식·이용익 등이 안에서 결탁하고, 조병식·민종묵·홍중우 등이 밖에서 뭉쳐 호응하면서 일본과 대신을 모함하고 이들의 지위를 흔들려고 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¹¹⁸⁾ 일본의 특명전권공사 가토 마스오[加藤增雄]는 1898년 12월 고종을 만나 몇 가지를 건의한 바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별입시 문제였다. 그는 별입시와 같은 무리가 대궐에 출입하며 국정을 사사로이 의논하면 내정이 문란해지고 결국에 가서는 고종의 위엄이 손상되고 民怨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¹¹⁹⁾ 친러파 중심의 별입시가 배일주의를 견지하고 있던 데 대해 불만을 표출한

113) 趙素昂, 『遺芳集』, 「독립운동가 82인의 열전」 7, 「李範晉傳」.

114) 노별입시 민영주의 아들 민경식은 1896년에 러시아에 파견되었다가 돌아온 후 김홍륙·이용익의 천거를 받았다.(『統監府文書』 8, 「韓國 官人の 경력 일반」) 아관파천 이후 고종의 측근으로 활동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115) 金永準은 구 별입시 김보현의 서자이다.

116) 『續陰晴史』 上, 光武 3년 8월, 513쪽.

117) 『국역 윤치호영문일기』 4, 1899년 1월 7일, 국사편찬위원회, 2016. 원문에는 李翰榮으로 되어 있는데 李漢英의 오키이다. 이근택은 李根鎔으로 나와 있는데 이근용은 이근택의 개명 전 이름이다. 본래는 李根濬인데 李根鎔으로 쓰기도 하였다.

118)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3, 「亡命者 歸國 云云에 관한 風說과 爆裂彈 一件」(1899년 6월 27일).

119)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3, 「本官 歸任後의 政況 및 具報한 民會 解散의 件」(1899년 2월 27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제국기를 전후하여 기존의 별입시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별입 시도 등장하였다. 『經亂錄』에서는 1895년에 별입시라는 명칭이 새로 생겨났다고 적고 있다. 시골의 잡된 술수를 지닌 자와 천민 倡優 및 하찮은 자들이 궁인과 환관을 등에 업고 마구 진출하여 아양을 떨어 모두 요직을 얻었다는 것이다.¹²⁰⁾ 재력가들도 별입시로 대거 충원되었는데 김택영은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때 황제가 재물을 더욱 심하게 탐하여 위로 조신부터 아래로 하례에 이르기까지 돈과 재물을 마련해 바칠 수 있는 자들을 가까이 하여 廳別入侍·階別入侍·地別入侍의 명목이 있었다. 이들은 몸에 비단 주머니를 차고 전표를 그 곳에 넣고 제멋대로 출입하였다.¹²¹⁾

대한제국을 선포한 후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돈을 출연할 수 있는 자들을 별입시로 기용했다는 설명이다. 황현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재물을 만들어내자면 관장하는 이가 있어야 하므로 위로는 공경대부에서부터 아래로는 종이나 장사꾼까지 끌어들이 그 숫자가 400~500명에 이르렀으며 이들을 모두 별입시로 불렀다는 것이다.¹²²⁾ 그리고 별입시에 청별입사·계별입사·지별입사 등의 등급이 있었는데 廳은 升廳한 사람, 階는 枱에 나열해 있는 사람, 地는 땅에 서 있는 사람을 뜻하며, 위로 대관부터 아래로 女巫·男巫·白丁·거간꾼까지 있어 고종이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라고 하였다.¹²³⁾ 별입시

120) 李範奭, 『經亂錄』(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 제2권), 乙未, 27쪽, “又別入侍之稱名 始出下鄉雜術者及賤人倡優狗屬者 貧緣宮人關侍雜進媚悅 皆得要職”.

121) 『韓史纂』 권6, 「太上皇紀」, 己亥 3년(1899), 331쪽, “二月 改憲法爲無限君權 名曰國制 當是時 帝饕財尤甚 上自朝臣 下至廝隸 苟能營進錢財者 皆親近之 有廳別入侍 階別入侍 地別入侍之名 身佩一錦囊以貯錢票而出入之故 愈不欲爲憲政所縛焉”.

122) 『梧下記聞』, 43쪽.

123) 『梅泉野錄』光武 4년 庚子(1900), 248쪽.

내에도 다양한 신분이 섞여 있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박씨가의 일기에도 房別入侍·堂別入侍·庭別入侍·場別入侍 등의 별입시가 있다고 한 것을 보면 새로운 별입시의 출현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고 할 수 있다.¹²⁴⁾

『독립신문』 기사를 보면 잡류들은 궁내부까지 진출해 있던 것으로 나타난다. 『독립신문』은 궁내부 관인 민강호·최병주·김홍수·윤상욱·이상설 등 5인이 별입시로 항상 한 방에서 함께 거처 하는데 정외가 더욱 각별한듯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¹²⁵⁾ 후속 보도에 따르면 최병주가 먼저 별입시가 된 후 나머지 사람들을 천거하여 그들도 별입시가 되었다고 한다.¹²⁶⁾ 독립협회는 1898년 10월에 올린 소에서 민경식·민강호·최병주 등이 서로 연계하고 대궐을 드나들며 고종의 뜻을 살피고 정사의 기틀을 엿보며 남을 헐뜯는 말만 일삼고 뇌물만 도모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¹²⁷⁾ 민강호·최병주 등이 주요 인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독립신문』에 보도된 최병주는 卜術에 종사한 崔秉周를 말한다. 그는 崔北斗라고 불렸는데 복을 빌고 재앙을 물리치는 술책으로 侍從職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²⁸⁾ 閔康鎬와 金興洙 역시 복술에 종사했던 자들이며, 최병주·민강호·김홍수는 力士로 항상 대기했다

124) 『小宅日記』 9(장서각 기록유산 DB), 1902년 9월 小, “閔大內出入者 易如隅舍 如有術業之絲毫末枝 自上必入侍其所愧別入侍者 各以所緊 有房別入侍 有堂別入侍 有庭別入侍 有場別入侍 大舜之好問好邇言 若是無防限乎”.

125) 『독립신문』, 잡보 「별입시 동거처」, 1898년 8월 3일.

126) 『독립신문』, 잡보 「최씨 등양」, 1898년 8월 11일.

127) 『大韓季年史』 上, 光武 2년(1898) 10월, 274쪽. 별입시를 긍정적으로 파악하는 연구에서는 별입시에 가해지고 있던 각종 비판을 고종 대 별입시의 공공연한 존재와 뚜렷한 역할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윤치호는 친일파였기 때문에 별입시가 항일독립항전에 투입되어 활약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별입시를 헐뜯었다고 지적하였다.(황태연, 앞의 책, 2017, 123쪽) 그러나 별입시로 대표되는 近侍들이 고종 주변에 포진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문제를 제기하였고 그 가운데는 최익현도 포함되어 있었다. 별입시가 거병과정에서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별입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128) 『大韓季年史』 下, 光武 8년(1904) 12월, 140쪽.

고도 한다.¹²⁹⁾ 이런 인물들이 별입시로 채용된 것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일이다.

여러 정황 증거로 보아 1890년대 중반에 들어 이전과 다른 유형의 인물들이 별입시로 채용된 것은 분명하다. 고종의 측근으로 활동했던 의정부 의정 尹容善도 소를 올려 사방의 浮雜한 무리들이 연줄을 타고 궁궐을 출입하고 있다고 지적할 정도로 잡류의 궁궐 출입은 문젯거리였다.¹³⁰⁾ 육군 참령 韓鎭行이라는 인물은 1902년 한 재신으로부터 고종이 卜筮를 좋아하니 자신이 한진행을 위해 임금께 알리면 별입시 자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¹³¹⁾ 복서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고종 스스로도 인정한 사실이다. 1903년 8월 영남 유림 郭鍾錫(1846~1919)은 고종에게 어진 이를 훌륭한하고 원대한 계책을 가진 무리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잡술이나 복술 등에 종사하는 부류에서 구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하자 고종은 이런 것들의 무익함을 모르지 않지만 여러 차례 환난을 겪고 나니 마음이 의심하고 두려워 요행을 바라는 생각을 면치 못했다고 답하였다.¹³²⁾ 1890년대 후반 이후의 별입시의 면모는 이전과는 차이가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졌듯 의병운동 과정에서 별입시가 고종의 밀지를 전달하는 등 역할을 했지만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129)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4, 「卜術로 황제를 현혹시킨 韓日同志組合 사업실행 방해자名錄 送付 件」, 1904년 3월 15일. 일본공사관에서는 이러한 무리를 끌어들이는 이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신기선을 지목하였다.

130) 『高宗實錄』 권40, 高宗 37년 3월 12일.

131) 趙昺奎, 권15, 『一山集』(국립중앙도서관 한고46-가1198), 行狀 「嘉善大夫行黃州大隊長兼陸軍參領韓公行狀」, 46쪽.

132) 郭鍾錫, 『俛宇集』 卷首, 「獨對日記」(癸卯), a340-024c.

V. 맺음말

고종은 대원군이 퇴진하며 실질적으로 친정에 나서자 자신의 부족한 정치적 기반을 보강하기 위해 별입시를 만들었다. 별입시는 본래 국왕을 특별히 알현하는 행위를 뜻하지만 고종 대의 별입시는 수시로 국왕을 면접할 수 있던 특권을 지닌 인사들을 지칭하였다. 별입시는 측근을 활용하는 고종의 정치 운영 방식을 잘 보여주는 존재라 할 수 있다.

김병사·김영수·김보현·정범조·윤자덕·조인희·민점호·이재극·민태호 등이 고종 친정 후 별입시가 된 인물들이다. 이들은 노론계 인사, 소론계 인사, 종친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노론계 가운데는 대원군 집정기에 소외되어 있던 인사들이 많았으며, 소론은 대표적인 명망가에서 선발하였다. 별입시의 핵심은 여흥 민씨라 할 수 있는데 명성왕후가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별입시는 무위소의 직임을 맡는 등 고종 측근으로 활동하며 고종 초반 정권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별입시는 1880년대에 들어서는 통리기무아문에 대거 포진되었다. 별입시가 투철한 개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통리기무아문의 관직을 맡았기 때문에 임오군란 때는 민씨와 함께 난군의 주요한 공격 표적이 되었고 일부는 목숨을 잃기도 하였다. 이런 가운데 전양목·정병하·조준두·김가진 등 이른바 ‘신 별입시’가 등장하였다. 이들은 기존의 ‘구 별입시’ 인사들과 차이가 있었다. 구 별입시가 명문가 출신의 과거급제자였던 데 반해 신 별입시는 서얼 내지 非사족 출신이었으며 문과급제자는 거의 없었다. 외유 경험이 있고 어학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구 별입시와 다른 점이다. 본격적으로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 능력을 갖춘 이들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사족 출신이 많이 기용된 것이다. 능력 있는 비사족 출신을 기용한 것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새로운 인력 충원 방식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만들어진 비정상적인 인력 충원 방식이기도 하였다.

고종은 갑신정변이 발생하자 구 별입시를 의정부 대신으로 기용하여 정국

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신 별입시를 비밀외교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두 차례의 ‘조로밀약설’은 그러한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고종은 신 별입시를 통해 러시아 측과 비밀리에 접촉하였고 이것이 문제가 되자 신 별입시의 개인적인 일탈로 돌리는 방식으로 대처하였다. 실패로 끝나기는 했지만 이러한 고종의 비밀외교는 위험을 회피하면서 외교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었다.

1894년 일본이 조선에 파병하여 내정개혁을 요구하여 조선은 위기를 맞았다. 고종은 구 별입시를 내세워 일본의 간섭을 배제하고자 했지만 일본이 갑오변란을 도발하면서 무산되었다. 일본의 주도로 친일내각이 들어서고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자 신 별입시 가운데 일부는 그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신 별입시와 고종의 동행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었다. 고종은 구 별입시를 활용하여 군권을 강화하고자 했지만 김병시 등은 의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고종의 실책을 지적하는 등 고종에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별입시를 활용하는 방식의 정치 운영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지만 다른 대안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김윤식은 1890년대 후반에 ‘노별입시’와 ‘소별입시’가 존재하였다고 밝혔다. 고종은 특정 인물을 측근으로 기용하여 정치를 운영하는 방식을 계속 구사하고 있었던 것인데 특히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친러파 인사들을 별입시로 삼았다.

한편 대한제국기를 전후하여 이전의 별입시와 전혀 다른 유형의 별입시도 등장하였다. 여기에는 고종 측근과 연결된 함경도 출신, 재력가, 복술에 종사하는 자 등 다양한 부류가 섞여 있었다. 대한제국의 재정이 극도로 곤란하였고, 고종의 심리적 불안이 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 대한제국기의 별입시 운영은 별도로 고찰해야 할 문제인데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사료

- 『高宗實錄』
『承政院日記』
『별건곤』
『독립신문』
『公文雜纂』
『사료고종시대사』
『小宅日記』
『舊韓國外交文書』
『淸季中日韓關係史料』
『甲午實記』
『주안일본공사관기록』
『통감부문서』
「성두후내외상격발기」(장서각 RD01553)
『知穀官廳憲日記』(장서각 K2-3375)
「製紙機器購買契約」(奎23065)
伊藤博文編, 『秘書類纂朝鮮交涉史料』
郭鍾錫, 『侁宇集』
金炳始, 『蓉菴集』
金永壽, 『荷亭集』
金玉均, 『甲申日錄』
金允植, 『雲養續集』
金澤榮, 『韓史繫』
金衡圭, 『靑又日錄』
李範奭, 『經亂錄』
李裕元, 『林下筆記』
李鑣永, 『敬窩集略』

- 朴周大, 『羅巖隨錄』
朴震英, 『匡西先生實記』
朴致馥, 『晚醒集』
鄭喬, 『大韓季年史』
趙素昂, 『遺芳集』
崔益鉉, 『勉菴集』
黃玆, 『梅泉野錄』·『梧下紀聞』
국가편찬위원회, 『국역 윤치호영문일기』4, 2016
尹致昊著·宋炳基역, 『國譯 尹致昊日記』, 탐구당, 1875
井上角五郎 著·한상일 역, 『서울에 남겨둔 꿈』, 건국대학교출판부, 1993

2 단행본 및 논문

- 具仙姬, 『韓國近代 對淸政策史 研究』, 혜안, 1999
權錫奉, 『淸末 對朝鮮政策史研究』, 일조각, 1986
권혁수, 『19세기말 한중관계사연구』, 백산자료원, 2000
김중학, 『개화당의 기원과 비밀외교』, 일조각, 2017
박 보리스 드리트리에비치 저·민경현 역, 『러시아와 한국』, 동북아역사재단, 2010
尹孝定, 『風雲韓末祕史』, 수문사, 1984
許東賢, 『近代韓日關係史研究』, 국학자료원, 2000
황태연, 『갑오왜란과 아관망명』, 청계, 2017

김영수,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주한 일본공사 이노우에의 개입과 대원군의 정치적 몰락-이준용역모사건과 김학우암살사건을 중심으로-」, 『사림』 81, 2022
김영수, 「대한제국 초기 고종의 정국구상과 궁내부의 세력변동」, 『사림』 31, 2008
김해인, 「勢道政治期 관료 鄭元容(1783-1873)의 정치 활동」,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朴已煥, 「근대초기 한국인의 일본유학」, 『일본학보』 40, 1998
- 宋炳基, 『近代韓中關係史研究-19世紀末의 聯美論과 朝淸交涉-』, 단대출판부, 1985
- 시부이 유미코, 「초기 한국인의 일본유학(1881-1905)-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 중심으로-」, 한국의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연갑수, 「蓉菴 金炳始(1832-1898)의 삶과 현실인식」, 『조선시대사학보』 44, 2008
- 오연숙, 「대한제국기 권력기구의 성격과 운영 대한제국기 의정부의 운영과 위상」, 『역사와 현실』 19, 1996
- 吳蓮淑, 「大韓帝國期 宮內府特進官의 運用」, 『사학지』 31, 1998
- 오연숙, 「이근택, 기회주의적 처세술의 화신(化身)」, 『내일을 여는 역사』 19, 2005
- 吳瑛燮, 『東農 金嘉鎭의 開化思想과 開化活動』, 『한국사상사학』 20, 2003
- 殷丁泰, 「高宗親政 이후 政治體制의 改革과 政治勢力의 動向」, 『한국사론』 40, 1998
- 李光麟, 「「開化僧 李東仁」에 關한 새 史料」, 『동아연구』 6, 1985
- 李光麟, 「開化期 知識人의 實學觀」, 『동방학지』 56, 1987
- 李光麟, 「舊韓末 露領 移住民의 韓國政界 進出에 對하여-金鶴羽의 活動을 中心으로」, 『역사학보』 108, 1985
- 任桂淳, 「韓·露密約과 그 후의 韓·露關係(1884-1894)」, 『韓露關係100年史』, 한국사연구협의회, 1984
- 田美蘭,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 關한 研究」, 『이대사원』 24-25, 1989
- 鄭秉峻, 「金奎植의 부친 金鏞元의 가계와 생애」, 『한국근대현대사연구』 73, 2015
- 崔炳鈺, 「朝鮮朝末의 武衛所研究」, 『군사』 21, 1990
- 崔賢淑, 「開港期 統理機務衙門의 設置와 運營」,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韓哲浩, 「閔氏戚族政權期(1885-1894) 內務府 官僚 研究」, 『아시아문화』 12, 1996
- 韓哲浩, 「閔氏戚族政權期(1885-1894) 內務府의 組織과 機能」, 『한국사연구』 90, 1995

A STUDY ON KING GOJONG'S STATE ADMINISTRATION AND
'BYEORIPSI(別入侍)' IN THE LATE 19TH CENTURY

NOH DAEHWAN (NOH, DAE HWAN)

This paper is a study of the 'Byeoripsi(別入侍)' during Gojong's reign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Byeoripsi, an official who was granted the privilege of seeing the king from time to time, existed until shortly before Gojong's forced abdication, after he had been installed by Gojong as a practical favourite. Although there had always been officials who served the king in his entourage, the creation of a special position and the granting of such rights was unprecedented. In this sense, the Byeoripsi is important for understanding the political system and political history of Gojong. However, the Byeoripsi have only been partially examined and not fully studied.

The Byeoripsi was established by Gojong to shore up his weak political base. At the time of its establishment, the Byeoripsi was largely composed of Noron(老論)-line, Soron(少論)-line, and Royal Family(宗親)-line. Among the Noron were many who had been marginalised during the reign of Heungseon Daewongun(興宣大院君), while the Soron were selected from representative prestigious families. Yuheung Min Family formed the core of the Byeoripsi. This was likely the result of the influence of Queen Myeongseong.

In the 1880s, a new group of individuals were recruited to the Byeoripsi. They differed from the previous Byeoripsi in several ways. Unlike the previous Byeoripsi, who came from prestigious families, they were not of high status and had few previous disciples. They were also different in that they had travelled to other countries and had language skills. They were appointed because the role of people with practical skills became important in the process of promoting the reform policy in earnest. The appointment of capable people regardless of their status was positive, but it was also an abnormal phenomenon due to the lack of a new way of recruiting personnel. Gojong used these new Byeoripsi not only to further his reforms, but also for secret diplomacy.

When Japanese influence in Korea increased in 1894, Gojong tried to use Byeoripsi to get out of the crisis. To ensure his own safety, Gojong used unattended men as Byeoripsi. Meanwhile, a different type of Byeoripsi emerged around the time of the Joseon Dynasty, which included a mix of wealthy people and those who were involved in shamanism. This was extremely unusual, even considering that the Korean Empire's finances were in dire straits and Gojong's psychological anxiety was high. When we look at Byeoripsi since 1894, the negative aspects are more evident than the positive.

Key Words : Gojong, Queen Myeongseong, Byeoripsi(別入侍), Imo Rebellion in 1882(壬午軍亂), Gabsin Coup in 1884(甲申政變), King Gojong's Flight to the Russian Legation in 1896(俄館播遷)